

이 시대에 바람직한 리더십모델



한국은 지금 외판성?

에서 한국주식시장이 사라졌다.”
 는 TV뉴스를 듣고는 소스라
 치게 놀라 깐 적이 있다. 출장내
 내 너무나 그 장면이 생생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자산이 있도록 한국의 국가경
 쟁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는 경제
 력, 정치력, 도덕성 등이 있지만
 이 모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고, 결국은 리더십으로 귀결된다.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의 요소로 “상생
 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동반
 성장 ...” 등을 모두가 한결같이
 부르짖어 왔지만 아직은 제대로
 실행된 사례들이나 진정한 리더
 십 스토리를 듣기는 어렵다. “난
 난세에 영웅이 난다” 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급증, 전세값 폭등...상
 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한국의 미래에 구원은 없는 것
 일까? 왜 한국에는 진정한 리더
 십이 부재할까? 한국의 리더십
 들이 시작할 때 비전 선포의 명
 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행과정
 에서 개인의 사욕과 야망이 뒤섞여
 비전이 오염되어 버리는 경향
 때문은 아닐까? 나의 사욕을 버
 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겸손의 마음보다는 타인을 향한
 정죄와 분노의 감정으로 비전의
 자기합리화의 딜레마에 빠져버
 리지는 않았는지 한국의 리더십
 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 시대에 한국에 필요한 리더십
 의 모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역
 사적으로 벤치마킹 할 만한 인물
 이 있다면 누구일까?

오늘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분은 현존하는 인물 클
 레르크 전 남아공대통령(77세)
 이고 또 한 분은 3000년전 이스
 라엘의 다윗 왕이다.

글로벌금융시장에서 한국은
 지금 외판성에 떠있는 느낌이다.

최근 필자가 해외출장 중에 악
 몽을 계속 꾸고 있는데, 꿈에 C
 NN에서 “한국이 국제경쟁력
 제로로 떨어져서 국제금융시장

클레르크의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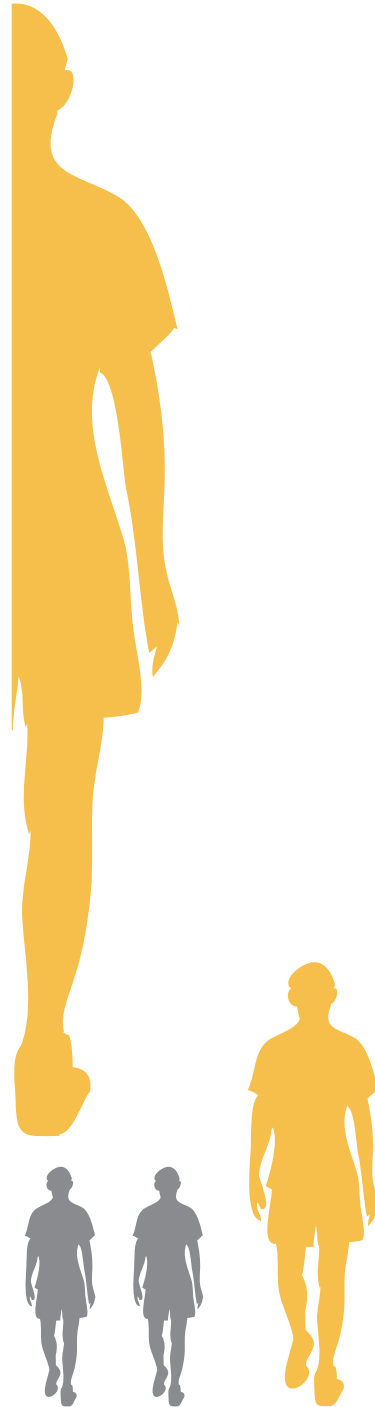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델라는 잘 알려져 있지만 무대 뒤에서 만델라 대통령을 세우고 그 밑에 들어가 부통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만델라의 후임 대통령까지 승계교육을 시킨 ‘진정한 상생의 리더십’인 클레르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89년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300년간이나 유지해왔던 인종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하고 만델라를 석방하여 온 국민이 공평한 선거를 통해 만델라를 대통령이 되게 했으며, 본인이 만델라 정부에서 들어가서 스스로를 낮추어 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만델라를 도와 국민통합을 이뤄냈다. 클레르크는 ‘민족의 통합’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를 지지해온 보수파 백인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는 극우파세력에 대항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는 큰 대가를 치렀다. 그는 백인들의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고 평화를 위해서는 타협 해야 하며 용서의 정신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클레르크 가문은 프랑스의 청교도인 위그노의 후손이며 삶에서도 모범적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만델라는 과거진상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관계자를 단죄하는 대신 과거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클레르크와 만델라는 공동으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용서는 평화를 영속시키고 증오는 서로를 파멸시킬 뿐”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미래화합을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포기해야 할 권리들이 있다. 둘 다 남아공 민족통합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 클레르크는 권력의 독점을, 만델라는 중앙집권제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남아공의 흑백공생의 새장을 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용서와 화합’의 ‘포용적 리더십’이다.

다윗의 리더십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일생 자기를 암살하려던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왕) 을 어느 날 동굴에서 일대일로 조용히 제거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를 살려주고 용서를 선포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후에도 사울의 유일한 자손 므비보셋 (도망 중에 낙마로 절름발이가 됨) 에게 선조의 토지를 상속받게 하고 매일 아침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호의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윗의 통 큰 ‘화합의 리더십’ 에 열광을 보였다.

원래 다윗은 평민 출신으로 농민의 일곱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말쑥로 볼품없는 양치는 목동이였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 을 받은 후 부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꿈과 미션’ 이 생겼다. 그것은 ‘이스라엘민족을 통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가 되는 비전이였다. 다윗은 일생 ‘미션에 부르심’ 을 잊지 않고 수많은 전쟁과 개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고의 세월을 헌신한 결과,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공통점은?

다윗 왕과 클레르크의 리더십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비전’을 일생 품고, ‘용서와 화합’으로 꿈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아라비아 로렌스’로 유명한 T.E. 로런스(Lawrence)는 이 비전의 대한 열정에 대해 묘사하기를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저서 <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로런스의 경우 비전의 시작은 좋았고,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로까지 나올 정도로 그의 젊은 시절은 ‘중동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의 인생 후반은 개인의 야망과 비전이 뒤섞여 자아의 혼돈 속에서 방황했고, 1935년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클레르크와 다윗은 ‘용서와 화합’의 정신으로 개인의 야망과 거룩한 소명의 간극을 늘 점검하면서 비전을 오용해서 자만과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겸손함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아공의 클레르크와 다윗 왕과 같은 포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낮에 꿈을 꾸지만 로런스처럼 위험한 인물로 변질되지 않고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하는 겸손한 리더, 비전을 오용해서 자만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대안적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공감하는 리더, 과거를 초월하여 용서하며 대화함으로 소명을 인내로 경주하는 사랑의 리더의 현현을 꿈꾸어 본다! (End)

정진호 회장

정진호 회장은 푸르덴셜 투자증권 사장과 한국소셜임팩트 대표 기업인 미스크(MYSC) 설립 및 초대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더웰스인베스트 회당이다.

